

인간의 욕망 조종해온 황금 이야기

피터 L. 번스타인의 《황금의 지배》를 읽고

고길섭 | 《문화과학》 편집위원

피터 L. 번스타인의 《황금의 지배》는 방대한 금 이야기를 한데 모아 보여주고 있다. 번스타인의 화두는

‘황금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는가’ 다.

이 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금에 도취되고 집착하는지 역사적 사례를 들어 흥미롭게 이야기해준다.

우리는 몇 해 전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희한한 경험을 한 바 있다. 도탄에 빠진 나라 경제를 살린답시고 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례 없이 금의 마술세계에 걸려든 셈이었다. 그것도 집단적으로 동원되면서. 그러나 진짜 무엇이 우리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말이다. 다만 우리는, 그 광채에 현혹되는 부의 치장물 정도만 알고 있었을 법한 금이라는 것이 한 나라 경제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성공한 셈이다.

황금이 인류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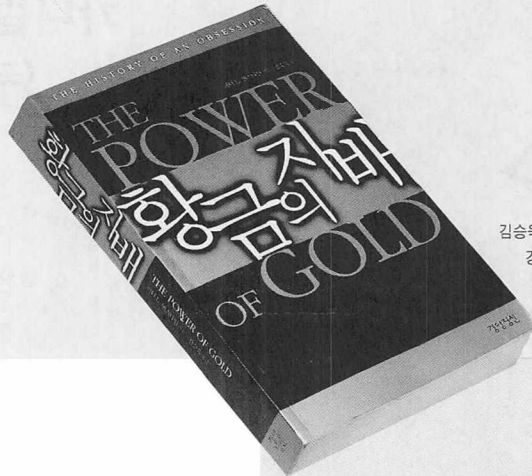
우리는 ‘금모으기 운동’ 빼고 금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거의 해보지는 못했다. 물론 우리는 일제 때 ‘노다지 캐러 간다’는 전설을 들어보기는 했다. 그리고 영화나 책, 텔레비전에서 접한 캘리포니아, 오스트레일리아, 클론다이크, 남아프리카에서 벌어진 19세기 ‘골드러시’의 역사를 기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나마 그것들은 우리의 기억에서, 금에 대한 아주 작은 인상의 파편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금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금이야기가 있다. 피터 L. 번스타인의 《황금의 지배》(경영정신)는 그 방대한 금 이야기를 한데 모아주고 있다. 책 분량이 600쪽을 넘어갈 정도로 방대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례들을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다.

번스타인의 화두는 ‘황금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는가’ 다. 이 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금이라고 불리는 금속 조각에 도취되고 집착하는지 풍부한 역사적 사례를 들어 흥미롭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금으로 장신구를 만드는 고도의 예술이자 권력의 상징으로 황금을 사용한 이집트 이야기부터 황금의 위력 위에 건설된 비잔틴제국의 권력과 부 이야기, 콜럼버스의 황금 약탈의 대항해와 그로 인해 황금과 공동체와 목숨까지 잃는 잉카황제의 비극 이야기, 그리고 금을 위해서라면 해적질도 마다 않는 신사의 나라 영국 이야기 등이 자세하게 소개돼 있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점은 지리상의 발견 이후 신세계에서 유럽으로 유입된 금과 은 대부분이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로 보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유럽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았다. 지은 이는 이를 아시아가 금과 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고 표현한다.

황금의 비밀을 더 신비화시킬 우려도 있어

금에 대한 인간의 욕망(권력, 영광, 아름다움 등)은 크리수스 같은 경우 심지어 녹인 황금을 목에 받아먹는 행복함(?)으로 살해당할 정도였단다. 이런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와 금의 역사의 기나긴 욕망전쟁은 “금이 역사의 주인공 대부분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이



김승욱 옮김
경영정신/A5신/612면/18,000원

것은 번스타인이 내린 결론이자 메시지다. 그러나 번스타인의 관심은 단지 황금 자체의 지배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금이 장식품의 역할과 화폐의 역할을 수행해온 점을 환기시키면서 금이 권력을 더욱 큰소리로 대변하게 된 것은 화폐로서 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였음을 강조한다. 실제로 이 책은 금의 지배에 기초한 화폐의 지배의 역사서기도 하다. 금이 권력과 탐욕의 기호로 작동하면서도 동시에 화폐체제로 제도화된 역사 속에서 경제사의 흐름에 관여해왔음을 놓치지 않고 있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부분까지.

그러나 이 책은 금이 인간을 어떻게 조종해왔는가를 보여주는 정도에 그치고 만다. 그런 정도의 서술에서는 역사적이고 정치경제적인 의미가 있는 금과 화폐의 비밀을 더 신비화시킬 수 있다. ‘금모으기 운동’이 그랬듯이, 따라서 “사람들은 종종 금이 옛날의 화폐였기 때문에 현대의 화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역사적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피에르 빌라르의 《금과 화폐의 역사 1450-1920》(김현일, 까치)를 함께 읽는 게 좋을 듯하다. ‘황금의 지배’에서 우리는 ‘경제의 지배’를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